

혁신과 창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하자

헬스케어 창업지원제도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 눈여겨 볼만
작은 성공사례 창출해 투자자금 유치하는 전략 필요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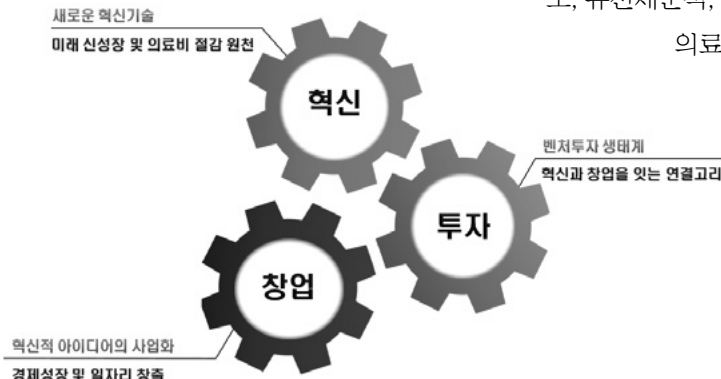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정책기획팀 이승민 연구원

건강경제 실현을 위한 3가지, 혁신 · 창업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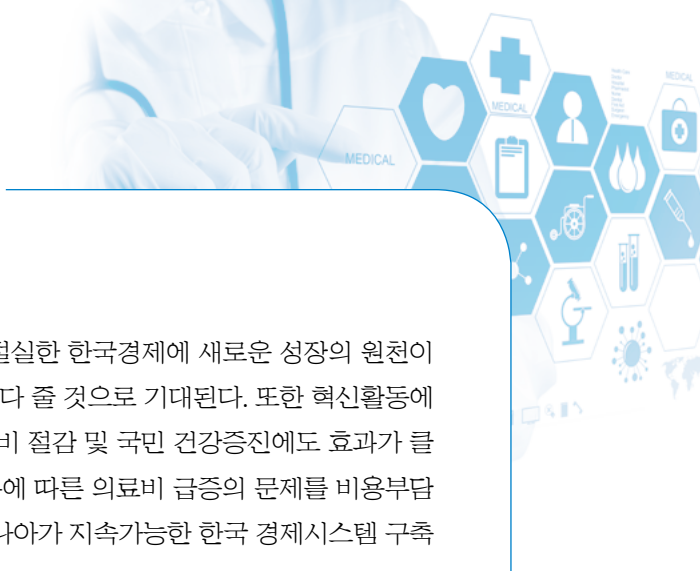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5월 건강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미래형 보건의료 R&D 가속화, 빅데이터 · IT- Health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건강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정책도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다가오는 건강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경제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이 선순환하는 건강경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활발한 창업과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증진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그리고 ‘투자’가 선순환 하는 이른바 ‘건강경제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건강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혁신, 창업,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혁신’은 건강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자 의료비 절감 기전의 원천으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로봇,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분석, 의료정보, 인공감각, 항노화 등 다양한 보건

의료 부문에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와 함께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질병치료 중심(오래 사는 것)에서 전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중심(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어 ICT, NT 등 타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와 폭발적으로



[그림 1] 건강경제 생태계



성장 중인 시장을 토대로 이뤄지는 혁신활동은 차세대 성장동력이 절실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활동에 따른 비용 효과적인 치료기술 개발 및 건강의 일상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혁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의 문제를 비용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나아가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혁신활동만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혁신’이라는 요소는 창업, 투자와 함께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건강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을 견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경제 생태계의 두 번째 핵심 구성요소인 ‘창업’은 상용화되지 못한 채 아이디어 및 기술 차원에 머물던 혁신을 사업화 (commercialization)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마지막 구성요소인 ‘투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더 높은 가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혁신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창업과 투자는 필수적 동반요소인 것이다. 이제 본 고에서는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비교적 간과되어 왔던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투자가 혁신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헬스케어 창업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즉, 혁신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은 창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사회·경제적 가치를 낳는 유형의 실체가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창업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이유 또한 이러한 창업의 가치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 유망 창업분야로 손꼽힌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급증과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표 1〉 디지털 헬스 창업 사례

구분	세부분야	기업명(창업아이템)
의료 부문	유전체 분석	Exact Sciences (대장암 조기진단)
	빅데이터	Aver Informatics (빅데이터 활용 의료비용 관리)
	모바일 앱	Ginger.io (스마트폰 생활패턴 수집 및 위험 경고) ImPACT (머리부상 정도를 현장에서 분석)
	기타	Reflexion Health (재활 물리치료 지원) Doximity (의사 전용 SNS)
헬스 케어 부문	유전체 분석	23andMe (유전체 분석, 발병가능성 예측)
	웨어러블 기기	Basis Fitbit Misfit 등 (생체정보 계측) Lumo (자세교정 센서)
	모바일 앱	Health Tap (의료관련 상담 플랫폼) Castlight Health (병원 진료비·서비스 비교) GoodRx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기타	ZocDoc (진료예약 서비스) Omada Health (체중감량 온라인 프로그램) HAPi (섭식습관 관리 포크)

기대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Rock Health, Healthbox 등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전 세계 약 115개 활동)가 등장할 정도로 헬스케어 창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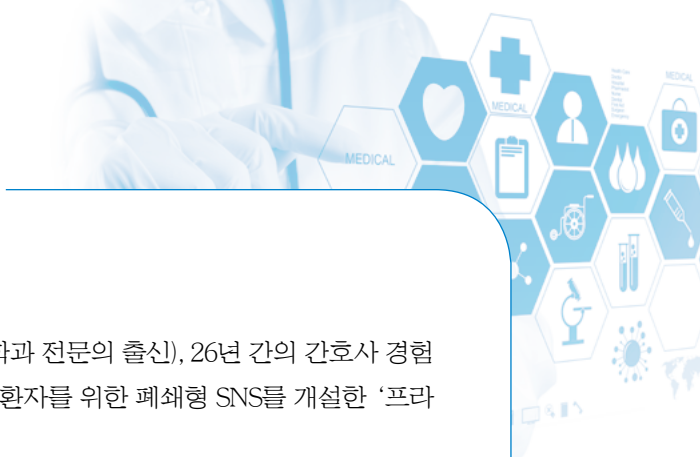
헬스케어 창업은 이와 같은 낙관적 기대 속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ICT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부문 창업이 활발하며,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받는 의료 부문보다 비규제 대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포괄하여 시장규모가 큰 건강관리 부문 창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창업 성공사례로, 개인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 가능성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23andMe’ (미국), 일반인이 게시하는 의료관련 질문에 의사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한 ‘Health Tap’ (미국), 체내 주입 초소형 장치로 엑스레이 없이 3D로 몸속 상태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한 ‘Biosense’ (이스라엘), 체중과 개인의 건강상태(체지방·근육량·기초대사량 등)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스마트 체중계를 개발한 ‘Picooc’ (중국)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창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반면, 국내 헬스케어 창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헬스케어 창업율은 7%대에 정체 중이고(‘12년 기준), 창업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된 바 없으며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책도 거의 전무하다. 미국, 이스라엘 등 창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헬스케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미국, 전역에 87개), ‘헬스케어 특화 기술인큐베이터’ (이스라엘, 전역에 17개) 등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에 기초한 새로운 국내 창업 사례들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다소 늦었지만 헬스케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유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한 첫 번째 유형으로 ‘사용자 혁신(user’s innovaton)’ 창업이 있다. 임상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의사·간호사 또는 환자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업하는 형태인데, 특히 최근 병원이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새로이 주목받으면서 의사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설명처방 서비스 ‘하이차트’를 개발한 ‘헬스웨이브’ 정희두 대표(외과 전공의 출신), 의료정보 제공

<p>① 의사 창업: ICT 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웨이브’ 정희두 대표 (외과 전문의 출신) - 복잡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개발 	<p>② 간호사 창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케이메디컬’ 이영희 대표(간호사 출신) -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분리·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개선한 ‘세이프락 주사기’ 개발
<p>③ 환자(가족) 창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오팩트’ 반호영 대표(뇌졸중 부모 간병 경험) - 장갑형태 웨어러블 기기로 재활운동이 가능한 재활치료용 게임 개발 	<p>④ IT-헬스 창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브레인’ 윤경식 대표(KAIST 박사 출신) - 전기신호로 알츠하이머 치료 웨어러블 기기 개발

[그림 2] 국내 헬스케어 창업 트렌드



및 상담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모바일 소아과’ 신재원 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26년 간의 간호사 경험을 토대로 창업한 ‘엘케이메디컬’ 이영희 대표(간호사 출신), 난치병 환자를 위한 폐쇄형 SNS를 개설한 ‘프라미슈’ 이준호 대표(희귀질환 환자 가족) 등이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창업 유형으로 국내 높은 수준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IT-헬스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의 생체정보 센싱 및 분석, 개인 맞춤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앱 창업이 늘고 있으며, EHR·PHR과 관련된 의료정보 관련 창업도 활발하다. 비록 미국의 디지털 헬스 창업 붐에 비견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ICT 기술 수준 및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업체로 뇌파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와이브레인’, 수면시 신체정보 수집 및 수면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라센’,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 모바일 앱 개발업체 ‘눔’ 등이 있다.

이제 국내 창업 역량을 토대로 건강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규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헬스케어 창업은 엄격한 인허가 규제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앱(App) 등 새로운 제품/서비스에도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가벼운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 2013년 서울대 비뇨기와 연구팀이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전립선암 계산기’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앱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배포를 금지한 바 있다. 분명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인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나, 단순한 의료정보의 제공, 건강관리용 제품 등 질병의 진단·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인체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향적 규제 적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이 창업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창업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계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다. 첨단단지의 첨단 R&D 지원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제품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진흥원의 기술사업화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건강경제 창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조성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건강경제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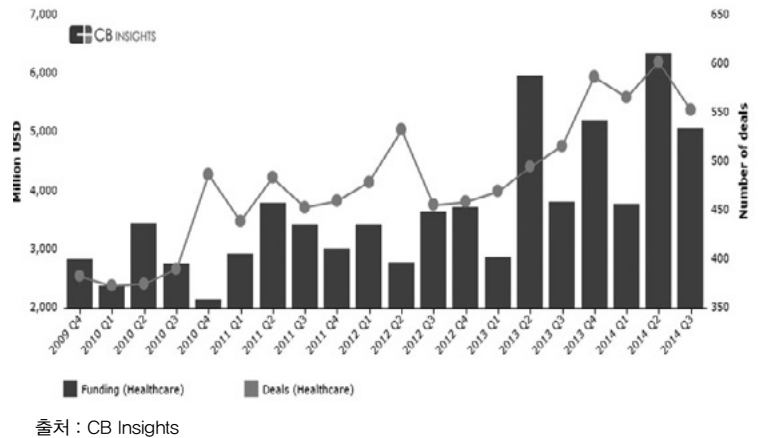


[그림 3]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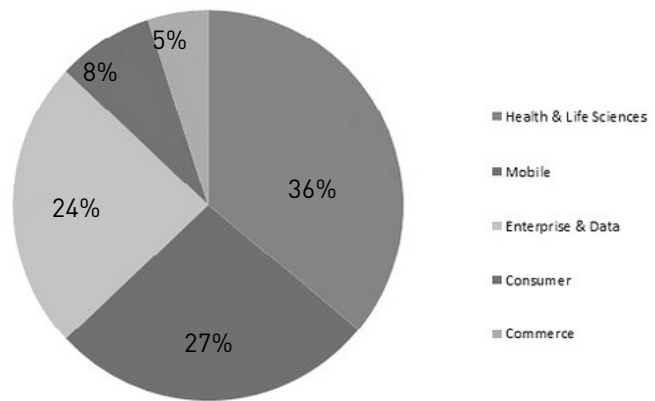
헬스케어 분야 투자 동향 및 활성화 방안

한편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경제 생태계의 세 번째 핵심 요소인 ‘투자’는, 창업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핵심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타 산업에 비해 창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널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각광받는 헬스케어 산업의 유망성이 맞물리면서 이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 증가율이 12%를 넘는 고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 제작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운동기록 어플리케이션인 ‘무브즈(Moves)’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필립스는 헬스케어와 소비가전 부문을 통합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새로운 헬스케어 플랫폼인 헬스



[그림 4]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추이



출처 : WSJ, 'Google Ventures shifts focus to health care', 2014. 12. 15

[그림 5] 구글벤처스 산업별 투자 비중 (2014년 기준)

킷(Health Kit)을 발표했고, 구글 또한 구글헬스의 실패를 딛고 지난해 8월 새로운 헬스케어 플랫폼인 구글핏(Google fit)을 공개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WSJ에 따르면, 구글의 투자업무의 중심축인 구글벤처스는 2014년도 약 4.25억 달러로 추정되는 총 투자액 중 무려 36%가 헬스케어 분야(Health & Life Science)에 집중되어 있어, 전년도 동 분야에 겨우 9%가 투자된 것과 비교할 때 구글이 향후 헬스케어 분야에 거는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외에 벤처캐피털(VC), 엔젤펀드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전체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액 대비 헬스케어 분야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바이오 및 메디컬 부문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 전세계 벤처투자(VC)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 부문에 43.67억 달러(32%), 메디컬 부문에 19.14억 달러(14%) 등 총 63억 달러(전체 46%)에 이르는 금액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되었다. 유럽은 바이오 부문에 13.49억 달러(43%), 메디컬 부문에 3.03억 달러(10%) 등 총 약 16.5억 달러(전체 53%)가 헬스케어에 투자되었고, 특히 바이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다.

〈표 2〉 창업기업 대상 산업별 벤처투자 비중('08~'12년)

(단위: million USD)

구분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	에너지	소비재	유통	기타
미국	4,367 (32%)	1,914(14%)	2,049 (15%)	1,617 (12%)	193 (1%)	98 (1%)	3,275 (24%)
유럽	1,349 (43%)	303(10%)	305 (10%)	652 (21%)	21 (1%)	10 (0%)	488 (16%)

출처 : Thomson Reuters

또한 세계적 투자펀드인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는 헬스케어 벤처기업의 높은 잠재력을 인식하고 바이오센스(BioSence), X-테크놀로지, 인스턴스(Instent) 등 다양한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얻고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즈마펀드 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바이오센스는 창업 초기단계에 요즈마펀드로부터 1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4년 뒤 투자금액의 30배 수준인 4억 3천만 달러에 J&J에 매각된 바 있다. 그 외에 X-테크놀로지(150만 달러 투자, 2억 달러에 매각), 인플루언스(24만 달러 투자, 나스닥 상장) 등 요즈마펀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공적인 회수사례를 다수 배출함으로써 투자 성과 창출과 함께 재투자의 기술창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표 3〉 요즈마펀드 헬스케어 투자 성공사례

투자기업	세부업종	투자금액	기타
BioSence	의료 영상기기	100만 달러	존슨앤드존스(J&J)에 4.3억 달러에 매각
X-Technology	순환기내과용 의료장비	150만 달러	가이던트(Gidan)에 2억 달러에 매각
Instent	혈관주입 의료장비	24만 달러	나스닥 상장
Influence	비뇨기과 의료장비	80만 달러	에임에스(AMA)에 4.6천만 달러에 매각
Radiancy	제모 의료장비	130만 달러	프토메딕스(PhoMedix)와 합병
Disc-O-Tech	척추와 등 의료장비	200만 달러	6천만 달러에 판매
Canfite	암 관련 바이오 기술	250만 달러	임상실험 2단계

출처 : 이원재,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2014.11.6) 투자 세션 발표자료

이처럼 급속히 성장하는 해외시장과 더불어 국내 시장규모 또한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며 신성장동력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예상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는 IT 기술 · 인프라와 첨단의학과의 시너지를 통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자활성화 대책” 내에 헬스케어 분야를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아 집중적 육성 필요한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신시장 창출 · 맞춤형 지원 · 성공사례 확산 등을 목표로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거대자본 및 복잡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져 왔던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장벽이 고령화, 건강에 대한 니즈 증가, 의료-IT 융합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혁신이 창업으로, 창업이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과 창업의 연결고리인 투자가 매우 중요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작고 무엇보다 기존의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록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창출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사업화 이전에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효과적 인큐베이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존 투자형태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 새로운 투자제도가 건전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투자위험도가 높아 VC 등 기존의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은 대표적 산업임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등의 형태가 헬스케어 산업의 투자에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 창업 · 투자를 통해 건강경제시대를 열다

건강경제 패러다임은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오며 사회를 양분시켰던 ‘의료산업론’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혁신적 성장 패러다임이다. 그동안 헬스케어 산업의 진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도되어 왔다. 그러나 창업과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건강경제가 우리 경제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은 오히려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경제 패러다임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다가오는 건강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과 창업, 그리고 투자가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건강경제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흐름은 혁신-투자-창업이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이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의료기술들이 나타나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